

# 고은의 불교 대하소설

## 그들의 동거생활

그 섬은 격렬비열도의 여러 섬과도 동떨어진 무인도였다. 이틀이면 서산군의 황도마을 풍어제(豐漁祭)의 그 엄격하기까지한 황소의 피 제사 따위와도 아무런 상관 없는 무인도였다.

사람들은 그 무인도에도 누군가가 살고 있다고 믿어 온 것이다.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신선인데 그는 언젠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리라 했다.

그런데도 섬의 풍광에는 쉽게 배를 달 만한 곳이 없는 암초의 위험이 있어서 마치 그런 위험은 긴 쇠사슬의 무게로 쳐지는 수곡선(垂曲線)과도 같은 금줄이라도 쳐진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

실지로 조선 초기의 한 담력이 있는 젊은 어부가 주낙배를 저어서 다가갔다 가 그 섬 풍광을 휘감고 있는 듯밖의 소용돌이 물에 휩쓸려 배는 조각나 여기 저기 널판지로 떠다니고 사람의 자취는 끝내 종잡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 뒤로 그 섬에 가는 일이란 거의 없었다.

처음 권력승 인담이 충청도 가야산에 이르렀을 때 그 지방에 퍼진 괴질에 걸렸으나 그는 사흘 뒤에 거뜬히 나아온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다. 그러므로 낯선 스님 인담의 재유가 돋보였다.

그를 신선이라 한 것은 그때부터였는데 그는 가야산을 떠나 바다 쪽으로 무작정 가는 것이었다. 마치 어떤 때죽인 귀신이 흘러서 가는 것 같았다.

이윽고 황도마을에서 북쪽 바닷가로 올라갔다. 거기서 황도의 풍어제에서 열리는 풍어타령을 듣고 언뜻한 한 인담은 그 열에 동행이라도 있는 것처럼 구시당했다.

일산 바다에 조기도 많고 우리네 주머니 돈도 많다 손중에 못 달고 만경창파를 떠나서 돈 실러 가세 연명 바다로 예해 어허중 예해 어허중

그 소리는 여선 바다 위의 사람들의 소리 인자라 담차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그런 타령에 걸맞으면 돈바람이 나와 버리니 풍어를 기원하는 오묘한 이치가 크게 감소될 따름이었다.

'노래에 욕심이 들어있으면 그 노래에 무슨 보탬이 있으리' 하고 인담은 부엌였다.

그런 낯의 툭날같은 검푸른 수평선 가늠으로 외딴 섬 하나가 방금 저쪽에서 떠내려 온 것처럼 그에게 새로운 화신(華信)으로 내다보였다.

그때였다. 저쪽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가까이 오는 늙은이가 있었다. 타고 난 병신이 아니라 먼 바다로 나간 지난 시절, 사나운 고기로부터 다리 하나를 먹힌 뒤 죽을 고비를 넘기고도 명(命)이 짙어서 의족(義足)에 의지하는 사람이었다.

'내가 풍어제 제주(祭主) 노릇을 일무번도 더하였으나 이제는 퇴물이 되어

바닷가에 밀려 온 감태 즐기민도 못한 신세라오. 현대 대사가 바라보는 저 섬은 물 한 방울 없는 곳이라오. 건너가다가 물귀신의 놀이개가 될 수 밖에 없으니...하기야 죽을 타이면 저런 곳에

언제 싹대를 잡아본 적이 있었는가. 그러나 그는 전생에 사공 노릇이라도 실컷 해 온 것처럼 능청맞게 싹대를 노로 삼아 지어갔다.

과도 한 담어리에 부딪칠 때마다 노를 꼭 쥐었던 것이다.

그렇게 해서 물귀신이 나온다는 소용돌이 일대를 용케 건너서니 섬 둘레에서 유일하게 포구가 뿜만한 아늑자늑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인제 싹대를 잡아본 적이 있었는가. 그러나 그는 전생에 사공 노릇이라도 실컷 해 온 것처럼 능청맞게 싹대를 노로 삼아 지어갔다.

과도 한 담어리에 부딪칠 때마다 노를 꼭 쥐었던 것이다.

그렇게 해서 물귀신이 나온다는 소용돌이 일대를 용케 건너서니 섬 둘레에서 유일하게 포구가 뿜만한 아늑자늑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인제 싹대를 잡아본 적이 있었는가. 그러나 그는 전생에 사공 노릇이라도 실컷 해 온 것처럼 능청맞게 싹대를 노로 삼아 지어갔다.

과도 한 담어리에 부딪칠 때마다 노를 꼭 쥐었던 것이다.

그렇게 해서 물귀신이 나온다는 소용돌이 일대를 용케 건너서니 섬 둘레에서 유일하게 포구가 뿜만한 아늑자늑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인제 싹대를 잡아본 적이 있었는가. 그러나 그는 전생에 사공 노릇이라도 실컷 해 온 것처럼 능청맞게 싹대를 노로 삼아 지어갔다.

과도 한 담어리에 부딪칠 때마다 노를 꼭 쥐었던 것이다.

그렇게 해서 물귀신이 나온다는 소용돌이 일대를 용케 건너서니 섬 둘레에서 유일하게 포구가 뿜만한 아늑자늑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인제 싹대를 잡아본 적이 있었는가. 그러나 그는 전생에 사공 노릇이라도 실컷 해 온 것처럼 능청맞게 싹대를 노로 삼아 지어갔다.

과도 한 담어리에 부딪칠 때마다 노를 꼭 쥐었던 것이다.

그렇게 해서 물귀신이 나온다는 소용돌이 일대를 용케 건너서니 섬 둘레에서 유일하게 포구가 뿜만한 아늑자늑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언제 싹대를 잡아본 적이 있었는가. 그러나 그는 전생에 사공 노릇이라도 실컷 해 온 것처럼 능청맞게 싹대를 노로 삼아 지어갔다.

과도 한 담어리에 부딪칠 때마다 노를 꼭 쥐었던 것이다.

그렇게 해서 물귀신이 나온다는 소용돌이 일대를 용케 건너서니 섬 둘레에서 유일하게 포구가 뿜만한 아늑자늑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인제 싹대를 잡아본 적이 있었는가. 그러나 그는 전생에 사공 노릇이라도 실컷 해 온 것처럼 능청맞게 싹대를 노로 삼아 지어갔다.

과도 한 담어리에 부딪칠 때마다 노를 꼭 쥐었던 것이다.

그렇게 해서 물귀신이 나온다는 소용돌이 일대를 용케 건너서니 섬 둘레에서 유일하게 포구가 뿜만한 아늑자늑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인제 싹대를 잡아본 적이 있었는가. 그러나 그는 전생에 사공 노릇이라도 실컷 해 온 것처럼 능청맞게 싹대를 노로 삼아 지어갔다.

과도 한 담어리에 부딪칠 때마다 노를 꼭 쥐었던 것이다.

그렇게 해서 물귀신이 나온다는 소용돌이 일대를 용케 건너서니 섬 둘레에서 유일하게 포구가 뿜만한 아늑자늑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인제 싹대를 잡아본 적이 있었는가. 그러나 그는 전생에 사공 노릇이라도 실컷 해 온 것처럼 능청맞게 싹대를 노로 삼아 지어갔다.

과도 한 담어리에 부딪칠 때마다 노를 꼭 쥐었던 것이다.

그렇게 해서 물귀신이 나온다는 소용돌이 일대를 용케 건너서니 섬 둘레에서 유일하게 포구가 뿜만한 아늑자늑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인제 싹대를 잡아본 적이 있었는가. 그러나 그는 전생에 사공 노릇이라도 실컷 해 온 것처럼 능청맞게 싹대를 노로 삼아 지어갔다.

과도 한 담어리에 부딪칠 때마다 노를 꼭 쥐었던 것이다.

그렇게 해서 물귀신이 나온다는 소용돌이 일대를 용케 건너서니 섬 둘레에서 유일하게 포구가 뿜만한 아늑자늑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인제 싹대를 잡아본 적이 있었는가. 그러나 그는 전생에 사공 노릇이라도 실컷 해 온 것처럼 능청맞게 싹대를 노로 삼아 지어갔다.

과도 한 담어리에 부딪칠 때마다 노를 꼭 쥐었던 것이다.

그렇게 해서 물귀신이 나온다는 소용돌이 일대를 용케 건너서니 섬 둘레에서 유일하게 포구가 뿜만한 아늑자늑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인제 싹대를 잡아본 적이 있었는가. 그러나 그는 전생에 사공 노릇이라도 실컷 해 온 것처럼 능청맞게 싹대를 노로 삼아 지어갔다.

과도 한 담어리에 부딪칠 때마다 노를 꼭 쥐었던 것이다.

그렇게 해서 물귀신이 나온다는 소용돌이 일대를 용케 건너서니 섬 둘레에서 유일하게 포구가 뿜만한 아늑자늑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인제 싹대를 잡아본 적이 있었는가. 그러나 그는 전생에 사공 노릇이라도 실컷 해 온 것처럼 능청맞게 싹대를 노로 삼아 지어갔다.

과도 한 담어리에 부딪칠 때마다 노를 꼭 쥐었던 것이다.

그렇게 해서 물귀신이 나온다는 소용돌이 일대를 용케 건너서니 섬 둘레에서 유일하게 포구가 뿜만한 아늑자늑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인제 싹대를 잡아본 적이 있었는가. 그러나 그는 전생에 사공 노릇이라도 실컷 해 온 것처럼 능청맞게 싹대를 노로 삼아 지어갔다.

과도 한 담어리에 부딪칠 때마다 노를 꼭 쥐었던 것이다.

그렇게 해서 물귀신이 나온다는 소용돌이 일대를 용케 건너서니 섬 둘레에서 유일하게 포구가 뿜만한 아늑자늑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 수미산

'이만하면 전생(前生)의 나와 현생(現生)의 내가 오랫동안 머물만한 곳이 아니라, 중이 산에만 모여들면 바다가 가벼워지니 내가 무거운 산과 가벼운 물을 달래어 중도(中道)를 이루지 못할 바 그 무엇이리. 여기서 사람이나 못 중생이 지닌 욕계삼욕(欲界三欲)이나 어루만져 티끌로 만들어보리'

이렇게 시작한 무욕도의 독신생활이 인담의 자연스러운 나날을 이루었던 것이다. 간혹 물으로 건너가 양식을 구해 오거나 시를 쓰기 위한 자필묵을 구해 올 때 그 곳 사람들을 만나도 인담의 수행 때문인지 그의 푸듯푸듯한 기운 때문에 그것을 신선이나 귀기(鬼氣)로 느끼는 백성들의 반응이 인담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였던 것이다.

그런 섬의 독신승이 한 남자를 데리고 섬에 건너왔으니 태안반도 일대의 어촌마다 심심하던 차에 주고 받을 때

밭바다는 그런 물 쪽의 소리 뒤로 조용해졌다. 파도도 한동안 쉬는 것인지 사위어 가는 불빛에 그 파도의 출렁거리는 반사(反射)를 그만 두고 있었다. 새벽이었다. 닭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고 바다 북관에서 들리고 있었다.

남자가 귀를 가다듬었다. 바다 수평선 너머에서 건너오는 소리였다. "스님! 닭 우는 소리가 바다 저쪽에서 들리는 데 왜 까닭이요?"

"그것은 말입니다...그것은 청(靑)나라 청주(淸州)의 닭이 우는 소리가 바다 바람의 방향을 타고 여기까지 들려오는 것입니다."

"정녕 그럴수 있을까요? 청나라와 조선이 얼마나 큰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는데..."

"옛날 당나라에 다녀온 고운(孤雲)선생이 그가 공부하던 곳을 그리워 해서

법(法-진리)이지 여느 사람들의 그것처럼 아를 딸이 아니오."

"아" 남자가 짧은 감탄을 내뱉었다. 그것은 기쁨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영혼의 무정(無情)이었다.

"나는 고려국 임춘선생의 시를 불의 선비들에게 전한 뒤로 할 일이 있으. 바로 그 일을 그대도 일념(一念)으로 도와 주기 바라오."

"스님의 말씀대로 하오리다."

인담은 <서하문집>을 펼쳐며 곁길 듯 었다.

"아직 나는 그대를 이곳으로 모시는 데 빛을 지고 있음이오. 그 빛을 길들 길이 열렸소이다."

"스님?"

하고 남자가 햇빛을 받은 이른 아침의 얼굴로 훑다워졌다. 그것은 놀라운 변화이기도 하였다.

## "우리는 공부로 사는 부부일 터이요" 그녀는 고인물처럼 고즈넉하였다

기 거리가 족해진 것이다. "신선이 짝을 데려 왔다네." "신선도 음양의 이치를 따르는 법이 아닌가."

"아무도 없는 섬에 단둘이 운우지정(雲雨之精)을 나누는 맛이란 어디 그것을 꿀맛 따위에 비할 것인가."

"그러고 보니 그 대사가 읊충하기는 산 닭을 죽었다고 잡아먹을 만하지."

이런 얘기가 오고 가다가 어느날 밤 바닷가에 일제히 불을 놓아 섬의 남녀가 놀라도록 하였다. 그런데 놀라기는커녕 섬의 바위등성이에도 생나무를 쪼다가 불을 놓아 불에 맞붙을 놓으니 그때야 어둠 속의 바다가 두 불빛에 물들어 이제까지 없었던 아름다운 풍경의 장관(壯觀)을 이루었던 것이다.

"신선님! 내내 복되소서!"

"..."

"대사! 복되소서!"

"..."

"신선님 우리 햇님들, 고기잡이 상것들 부디 안태(安泰)토록 살펴주소서!"

군침도 알바다 자천대(紫泉臺) 바위 위에서 글을 읽으면 중국의 선비들이 그 글 읽는 소리를 듣고 그 글을 따라 읽었다 합니다.

"번 데와 가까운 데가 풀이 아니로군요."

인담은 새벽의 푸신 짙은 습기의 바다 기운 가운데서 입술이 짙아지는 것을 즐기는듯이 방긋이 웃음을 머금었다. 사할도 꽃을 피울 때는 그렇게 피우는 것인가.

그래서인가, 저 아래 한 군데의 모래밭 귀퉁이에서 해당화가 활짝 피어 날 준비를 하는 개화직전(開花直前)의 긴장을 바다 위에 깔리는 먼종 빛으로 풀어 내고 있었다.

인담이 남자에게 말했다. "이제부터 그대와 나는 이 섬에서 부부가 되었소."

"..."

"그러나 우리는 하나의 갈대지붕 아래 이만만 서로의 몸을 건드리지 않는 공부로 사는 부부일 터이요. 우리의 지식은

그러나 인담은 그런 아름다움에 일상(尋常)하였다. 입춘의 시 몇줄을 훑어 보다가 저기 올려보는 것이었다.

서쪽은 말안장에 허열계 쌓이고 채찍을 드는 곳에 멧산이나 푸르렀노는 (跨馬行衝微雪白 驍鞭吟數亂峯青)

인담은 무릎이라도 치고 싶도록 시 「겨울길(冬日途中)」의 이 구절에 감동하였다. 고려 인종 말엽 무신 정중부(鄭仲夫)의 군사반란 당시 가까스로 화를 면하여 공림으로 생애를 마친 시인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채찍을 들어 그것으로 산봉우리 푸르름을 쫓아내는 대목은 전율(戰慄)이었다.

인담의 곁에서 남자 우려는 걸코 미친 여자가 아니었다. 실로 고인물처럼 고즈넉하였다. 그러나...

그림 · 최규일

가서 수장(水葬)되는 것도 썩 좋을 것이여."

늙은이는 권히 허드레 그를 한 다발을 어깨에 메고 한쪽 다리를 기웃 동대며 갔다.

인담은 섬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내가 건너가 볼 일이다. 천축(天竺: 印度)의 해수관음(海女觀音)이 보살과 주실 터이니..."

그는 늙은이가 오던 곳으로 더 올라가 낡은 조각배 하나를 대강 지레짐작으로 점검한 다음 그 배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알 바 없이 그것을 파도 위로 밀어내어 기기에 열렁 댔다.

은종 파도에 얻어맞아 그야말로 '비맞은 중'의 물골이었다.

(주) 해인 · 동아디젤상사

## 선박 엔진의 모든 것 동아 디젤 상사에 맡겨 주십시오.

최고의 엔진 · 최고의 성능,  
(주)해인  
-동아 디젤 상사-와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 동아 디젤 상사의 선박 엔진은 세계 최고의 기술로 만들어진 엔진입니다.
- 판매에서 AS까지 섬기는 자세로 고객을 대합니다.
- 엔진의 성능은 곧 선박의 선능입니다.
- 안전 운항 · 쾌적 운항, 동아 디젤이 돕습니다.

### (주) 해인

동아디젤상사  
DONG-A DIESEL CO.  
부산시 영도구 남항동 17가 22  
TEL. (051)415-1250~1  
(051)415-1432  
FAX. (051)415-1461